

보은과 절의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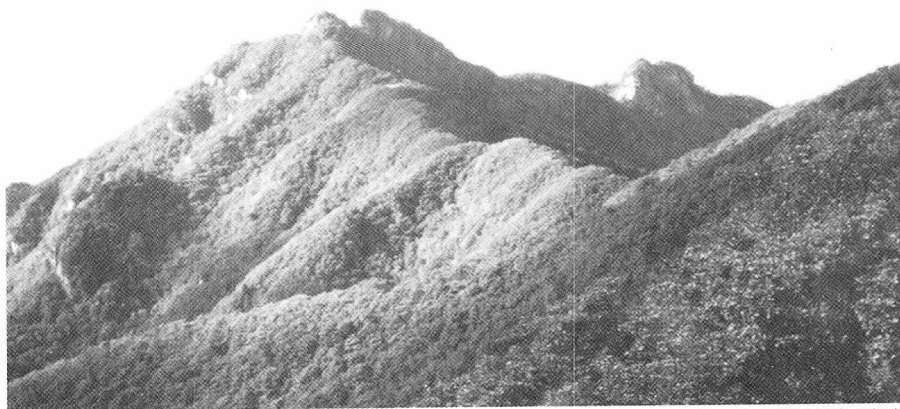
치악산 국립공원



김 장 호
동국대 명예교수

강 원도 원주경내에 제일 이름난 산은 치악산이라. 명량한 빛도 없고 기이한 봉우리도 없고 시커먼 산이 너무 우중충하게되었더라. 중중첩첩하고 외외암암하야 웅장하기는 대단히 웅장한 산이라. 그 산이 금강산 즐기로 내린 산이나 용두사미라, 금강산은 문명한 산이요, 치악산은 야만의 산이라고 이름지을만한 터이러라.’

신소설 ‘치악산’의 첫머리 첫대목이다. 산아래 제일 크고 이름난 동네, 단구역말 홍참의택의 며느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친구사상과 풍습의 대립과 그 일가족의 이합집산을 엮어나간 이틀테면, 개화기의 세태소설이지만, 무대는 주로 단구동과 치악산중으로 집중된다. 작가 이인직은 이 소설로 인하여 원주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서울 사람으로서 그가 치악산을 오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러나 1912년에 발표된 이 소설에는 그 산에서 호환을 당하는 대목이 몇 차례나 나오는데, 지금부터 80년 전 그무렵, 그 산에 호랑이가 득실거렸다는 것을 그저 소설적인 허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빼어난 경관도 없는데다가 험준하기만 하여 ‘야만의 산’이라고까지 일컫고 있는 것을 보아도 치악산은 ‘산신의 영험이 많아서 사냥꾼도 감히 짐승을 잡지않는다’고까지 이중환이 ‘택리지’에 적어놓을 만큼 그 산은



삼봉과 투구봉의 원경

역시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온 모양이다.

사실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치악산(1,288m)에는 산꾼들도 쉽지 않았었다. 원주까지 가는 일도 그렇지만, 원주에서 구룡사까지의 교통편은 더구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주시내 군인극장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더라도 학곡리까지밖에 더는 가지 않았으니, 거기서부터 무쇠점을 거쳐 산밑까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장장 10km는 걸어야 했다. 더구나 하산길이라도 지체되면, 그나마 학곡리에서도 이미 차편이 끊어지고 있으니 어찌리, 거기서부터는 다리목, 소초로 해서 밤 11시의 중앙선 열차만 믿고 원주역까지 30리는 넘는 시골길을

터벅터벅 달빛을 받으며 내내 걸어나왔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지금 치악산은 다르다. 1973년부터 도립공원이었던 이 산이 '84년에 와서 둘레 182.1 평방킬로에 걸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부터는 나날이 면모를 달리해왔다. 부지런한 건각이면 하루에 주능선을 답파할 수 있을 만큼 산아래 교통이 편리했다. 뿐더러, 험하기로 이름난 그 사다리병창에도 철책이 가설되고 또, 원통재로, 곤은치로 중간중간을 잘라가며 뚫려있는 등산로로 15km의 주능선이 대로처럼 환하게 열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치악산은 역시 그 이름에 값할만큼은 산세가 우람하다. 길이만 해도 구룡사에서부터 올라붙어 비로봉,

향로봉, 남대봉을 밟고 윗성남까지 종주하는 경우면 자그만치 25km는 되니, 근 10시간은 걸어야 한다. 그 중에도 비로봉 정상으로 직등하는 사다리병창은 말하자면 그 초입에서부터 단단히 겁을 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유산객들은 대개, 정상에 오르자마자 기운이 빠져서는, 왕년에 용창중이라는 이가 3해3강의 돌을 모아 쌓았다는 세개의 돌담둘레에서 기념사진이나 찍고서, 서둘러 뛰 너미고개로 빠져 구룡사로 되내려간다. 한데 그 사다리병창이란 이름은 언제 누가 붙인 것일까. 사다리는 사다리를 걸치지 않고서는 기어오를 수 없다는, 혹은 그 사다리를 세워놓은 것처럼 좁다랗게 깎아질렀다는 것일테지만, 병창은 선박의 칸막이 나무를 가리키는 것, 아니면 좁다랗게 깎아질렀다는 것일테지만, 병창은 선박의 칸막이 나무를 가리키는 것, 아니면 두사람이 함께 소리를 맞추어 노래하거나, 가야금 따위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거나 하는 것인즉, 굳이 말하면 틈서리를 벌리지 않고 꽉 막힌 절벽이라, 소리하면 서로 얼린다는 뜻일까, 더러는 만 산에도 그런 난

■ ■
 머리를
 복동으로
 치들고, 왼쪽 앞뒤
 발로는 무엇도룩 잔뜩
 땅바닥을 움켜 넣어,
 오른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 ■

소가 없잖지만, 이 자리만큼 그 이름이 어울리는 곳도 달리 있을성싶지 않은 것이다.

머리부분이 그만한 이산에 앉음새는 한마디로 흡사 거대한 도마뱀을 연상하게 한다.

머리를 복동으로 치들고, 왼쪽 앞뒤 발로는 무엇도룩 잔뜩 땅바닥을 움켜 넣어, 오른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그 산줄기가 시작되는 오대산으로 도로 기어드는 형국 일까, 아니면 태백산줄기를

넘어 동해로 물을 찾아가는 시냇물일까, 오른쪽 앞발을 한껏 내어뻗고 있는 산줄기가 영동고속도로의 원주 새말에서부터 둔내까지 내내 차창으로 덮쳐들 듯이 비쳐보인다. 머리 위 그 오른발 갈퀴 끝이 매화산(1,084m)이요, 수레너미재(1910.7m), 천지봉(1,087.1m), 배너미재(1,062m)로 팔을 이룬다면, 왼쪽 앞발은 삼봉(1,076.6m), 투구봉(1,002m), 도끼봉(1,187m)으로 뻗혀 나간다. 정상에서 힘을 잔뜩 들인 고개가 목덜미에서 안으로 수그러지면서 원통채, 곧은치로 내려 앉았다가는 허리가 불끈 솟아올라 향로봉(1,042.9m)이 되고, 다시 영덩이짜이 뭉긋하면서 만

경대(1,123m), 남대봉(1,181.5m), 사 명 봉(1,0187m)이 된 다음, 길게 꼬리를 깔면서 대치, 선바위(1,006m)로 휘어 그 끝에 매봉(1,094m)과 감악산(945m)에 가서 맥을 떨군다. 얼마나 몸을 꼬아 비틀며 용트림을 했던지, 그래서 이 산 서쪽이 급한 대신 동으로는 뜻밖에도 완만한데, 이 줄기가 이어나간 남쪽 매봉과 감악산에서는 거꾸로 서쪽이 완만하고 동쪽이 가파른 것만 보아도 통칭 치악산줄기로 불리는 이 산줄기의 기세를 짐작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치악산을 내외로 나눈다면, 의당 산줄기가 굽어도는 동쪽, 즉 횡성군 강림면이 내치악이 되고, 원주는 오히려 외치악이 되는셈인데도, 그쪽 경사도가 심하여 경관이 그만큼 빼어나서일까, 치악산은 여전히 원주의 산으로 치부되고 있다. 골짜기 흐름도 거기따라 동쪽기슭이 훨씬 집중적이다. 북에서부터 훑어내려봐도 그렇다. 수레너미재와 천지봉 사이 어령골이며 주봉과 배너미재 사이의 가래골, 주봉과 원통재 사이의 다리골, 그리고 원통재의 원통골, 골은치의 산막골과 골은치골, 거

■ ■
 얼마나 몸을
 꼬아 비틀며 용트림을
 했던지, 그래서 이 산
 서쪽이 급한대신 동으로는
 뜻밖에도 완만한데, 이 줄기가
 이어나간 남쪽 매봉과
 감악산에서는 거꾸로
 서쪽이 완만하고
 ■ ■

기다가 향로봉에서 내리는 산성골등 동류하는 골짜기가 모두 부곡리로 모여들어서는 회천강에 합류하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그 갈래가 크게 3분된다. 즉 북쪽 정상 아래 큰골과 쥐너미골은 하곡으로 빠지는데, 범골, 윗황골, 관음골, 국형골등은 원주천에 가서 어울리게 되고 또, 남대봉 아래에서 동서로 나뉘는 상원골과 영원골은 각기 전자는 성남의 주포천이 되어 충주호로 들고, 후

자는 봉천이 되어 서쪽으로 흐른다. 결국은 다같이 남한강으로 합류한다지만, 이 산은 횡성과 원주, 그리고 평창과 영월에 걸쳐 영서지방 한가운데를 뚫어내는 그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정상에서의 파노라마도 그만하다. 더러 시루봉이라고도 불리는, 참 이 산의 빼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둥글한 비로봉 정상에서는 북으로 영동고속도로 너머, 횡성일대의 산덩어리가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짝 들어차 보이는 가운데, 매화산 건너 북동으로 둔내쪽, 태기산(1,261.4m)과 봉북산(1,021.5m)의 그 뾰족한 정수리가 유독 긴가민가 어렵되지만, 정상에서는 물론, 남대봉까지 종주하면서 내내 동으로 아슴하게



비로봉 정상의 설경

따라붙는 것은 영월의 백덕산(1,350.1m)이다. 그것도 이마 까지만 내어밀고 지금 막 떠오르는 달처럼, 멀면서도 가까이 영서의 두개 명산으로서 이 산과 이웃하는 정의를 그렇게 뭉긋하게 드러낸다. 남대봉에서는 물론 신림면 일대의 골짜기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그너머 남동으로 매봉과 감악산이 날카롭게 치솟아 제천땅을 넘본다.

덩치가 크면 거기 의지하는 인정도 절로 따르는 법이라, 이 산에는 그만큼 유적들이 오래전부터 골골이 깃을 치고 앉아 있다. 우선은 이 산을 찾는 누구나가 먼저 엿보게되는 것은 구룡사다. 절 동쪽 100M쯤, 용이 승천했다는 구룡소에 그 이름이 인연한다는 이 절은, 신라 문무왕 6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둘째가 온통 험한 산중이라 그랬을까, 그 환란이 심했던 시절을 용케 면하여 뜻밖에 훼손이 덜

하다. 그 중에도 못 하나 쓰지 않았다는 대웅전 건축이나 또는 세 사람이 석달동안 깎다는 보광루의 그 큰 명석은 함께 그만한 풍상을 일러준다.

한편 이 산 남쪽 끝머리, 남대봉 아래 전나무숲으로 싸여 있는 상원사는 쨍한 하늘을 이고 표고 1,000m는 넘는 높이에 앉아 있다. 신라말기 경순왕때 무착조사가 창건했으나 그새 황폐화한 것을 조선조에 와서 나옹화상이 들어 증창했다는 이 절은 6.25때 다시폐허가 되었다가, 근년에 겨우 당우를 새로 마련했다.

경내에는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300년 묵은 계수나무가 세 그루 있고 또, 무엇보다 까치가 은혜를 갚는 저 유명한 설화가 탕화로 그려져 있다. 사람이 까치새끼를 보호하고 그 까치가 뱀에게서 사람을 보호한다는 이 윤희도(輪廻圖)는 불교의 독특한 생명존중사상으로서 그런 사상을 하필이면 이런 인적

이 드문 높이에 올라 깨쳐야 하다니..... 산도 결국은 인간발전의 한 길목이라는 새삼스런 느낌이 여기 와서 새롭다.

남대봉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맷줄기에 아들바위가 있고, 거기서 또 서쪽으로 흐르는 골짜기 산허리에 영원사가 있다. 이 절은 본디 永遠寺였으나 인조 반정때 지금 鶴遠寺로 바뀌었다 하니, 그것은 또 할미새(鶴)와 무슨 인연이 닿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 절은 그 위치로 보아 아무래도 그 아래 영원골 건너 갈마재 아래 영원산성과 더 관련이 클 성싶다. 영원산성은 그보다는 서쪽에 있었다는 해미산성 또 그 동쪽 아래 있었다는 금대산성과 함께 우람한 치악산에 등을 대어, 원주에서 제천을 잇는, 지금도 중앙선의 파리굴이며 백척다리가 놓여 험준하기 이를데 없는 이 협곡 요지에 위치하며, 임진왜란 때 크게 이바지한 산성들 중 하나다.

이밖에 황골의 입석대에 있는 입석사, 향로봉 서쪽으로 깎아지른 비탈 오솔길 아래 산새둥지 같은 보문사, 그리고 그 아랫골의 국향사, 국향사에는 그 이름답게 조선조의 5악중 동악단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치악산을 찾는 이들이나 원주 사람들도 이 산 서쪽자락에 원천석(元天錫)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지금의 행구동 옛날 이름으로

는 살구뚝의 유암에서 파고 드는 석경사의 남쪽 개울 건너에 있는 그 묘는, 줄잡아 500년은 되는 저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의 그 시조의 원작자 무덤이다.

원천석은 길재(吉再), 조견(趙狷), 남을진(南乙珍)등과 함께 고려유신으로서, 그는 이씨조선이 들어서자 고향 치악산으로 숨어들어 다시는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본디 이방원의 사부였으나 그 이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한 후 불려도 아니 나갔다. 그에게는 저서로 여말 사정을 자세히 기록한 야사(野史) 6권이 있었으나 지금 전하지 않고, 다만 앞의 시조와 함께 한문시집 2권과 고려유신회고가가 전할 따름이다. 원천석은 바로 그 치악산 정기라 할 곳곳한 절개의 인사였던 것이다.

그 원천석을 찾아 헤맨 자취가 지금 내치악 강림리의 태종대에 남아 있다. 치악산을 북동으로 돌아 매화산까지를 안고 새말, 안흥에서 남으로 훑어내리면, 영월, 제천과도 담을 치는 두메 안, 내치악으로 들어선다. 강림리에서 다시 향로봉의 턱아래 부곡리로 난 비포장도로를 5리쯤 구비 돌아들면, 비탈길 왼쪽 예쁘장하게 튕겨진 바위 위에 비각

이 있으니, 빗돌에 주필대라 새겨져 있다.

거기 올라서서 내다보면 발아래, 내 치악의 골짜기 물을 한데 모아 흘리는 용추(龍湫)가 시퍼렇게 휘감아 돌고, 북서쪽으로 아련히 치악산 정수리가 여기를 굽어본다. 안내판에 태종이 등극 후 그 스승 원천석을 찾아 이산을 헤매었으나 여기 이르러 단념했다는 것이다. 쳐다보아 첩첩이 막힌 산 속, 어느 골을 헤쳐 스승의 곧은 의지를 휘어잡을 것같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조선조 중종, 선조때 이 개의 송와잡설(松窩雜設)에는 또 이렇게도 적혀있다. 각림사(覺林寺) 남쪽 3.4리에 용추가 있는데 그 위에 반석이 산에 기대여 솟아 있어 태종이 때때로 책을 끼고 여기 올라 글을 읊곤 했다'는 것이다. 그 각림사는 대개 지금 강림리(講林里)에 있었음이 분명할 성싶다. 음과 뜻이 비슷할뿐더러 용추의 3.4리 북쪽에 그 절이 있었다니 말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그 각림사가 치악산 동쪽에 있으니, 태종이 등극 전에 책을 읽던 곳이다. 일찍이 횡성에서 무예를 닦다가 이 절에 연(輦)을 머무르고 늙은이들을 불러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民戶)를 팔려주었으며 또 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였다'고도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태종이 나중에 전국 사찰을 정리할 때도, 사격(寺格)을 인정하여 전지(田地) 7,950결(結)을 분배하게 한 36개 사찰 가운데 각림사는 빠지지 않았다. 그보다 앞서는 태종실록에는 그 태종이 몸소 행차했거나 시주했거나 한 기사가 약 10회나 나타나고, 또 세종실록에 3번, 성종실록에도 3번이나 보인다. 거기 이름난 이로 변계량(卞季良)의 '치악산 시'며 황희, 정인지같은 이름도 드러난다. 더구나 앞서 말한 송와잡설에는 그 각림사가 워낙 수칸 모사(茅舍)로 숲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태종이 점저(潛邸)시 자주 이 절에 와서 글을 읽고 한 인연으로 등극 후 특명을 내려 크게 일구었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그 책에는 임진란때 각림사는 불타 없어졌으나 태종대는 여전했다고도 전한다.

태종이 여기로 드나든 길은 존재였을까, 수레너미재였을까, 아니면 수째 치악산 중허리를 가로질러서 필 엮을까. 어쨌거나 조선조 조정 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 놓은 태종 이방원의 그같은 호기는 물론, 그 스승 원천석의 대쪽같은 절개마저도 필경은 이 치악산 품이 키운 것이나 아닌지 모른다. ♣